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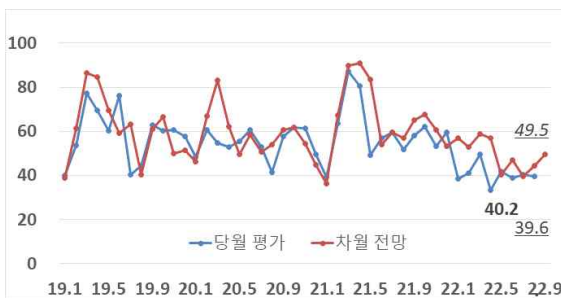
I. 2022년 8월 건설경기평가 및 9월 전망

■ 8월의 경기평가는 전월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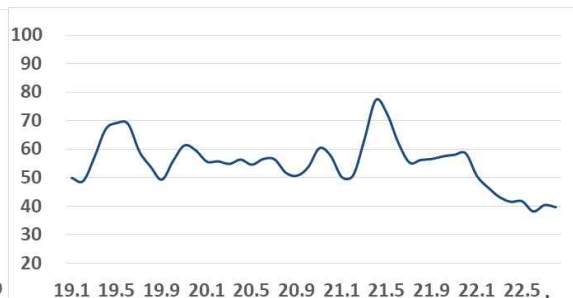
- 8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9.6으로 전월(40.2)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0.6p). 차월인 9월의 전망치(49.5)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현실화되더라도 전년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응답업체들의 경영 애로사항은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의 공사원가 상승요인과 함께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 건설공사의 수주문제가 크게 지적되었음.
- 수도권은 35.7(37.0→35.7)로 전월의 수준(-1.3p), 지방은 41.2(41.3→41.2)으로 유사함(-0.1p).

〈표-1〉 2022년 8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9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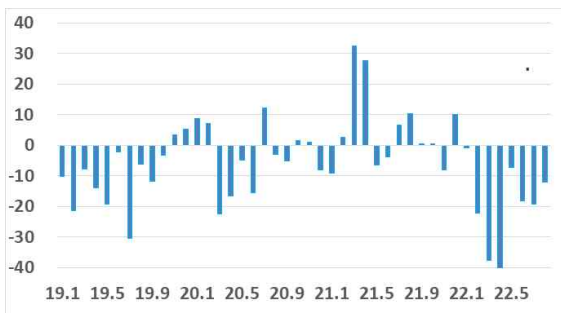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8월 평가	39.6	51.8	35.7	41.2	34.2	48.4
2022년 9월 전망	49.5	65.1	44.6	51.5	39.5	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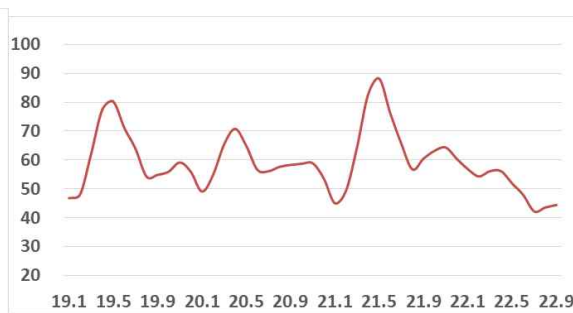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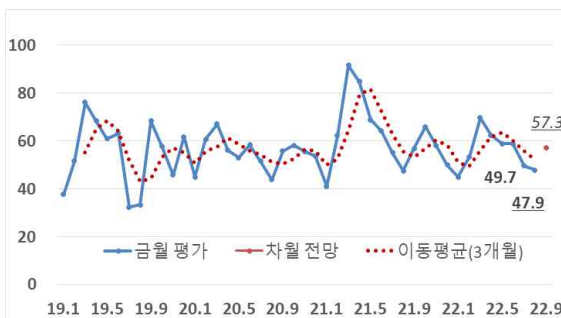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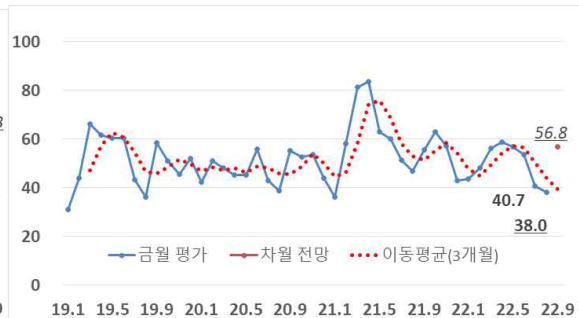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47.9(49.7→47.9)로 4개월째 하락했으나(-1.8p) 전년 동월의 수준을 유지함. 하도급수주도 38.0(40.7→38.0)으로 하락추세를 이어감(-2.7p).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5.7→41.1)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4.6p), 지방(51.0→50.7)도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0.3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40.7→39.3)은 전월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1.4p), 지방(39.2→37.5)도 비슷한 결과가 집계됨(-1.7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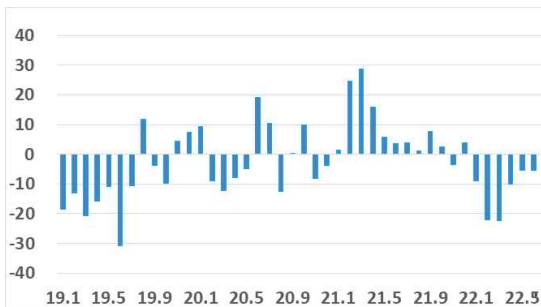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8월 평가	47.9	47.6	41.1	50.7	39.5	75.8
	2022년 9월 전망	57.3	66.3	60.7	55.9	65.8	74.2
하도급 수주	2022년 8월 평가	38.0	47.0	39.3	37.5	36.8	56.5
	2022년 9월 전망	56.8	63.9	58.9	55.9	60.5	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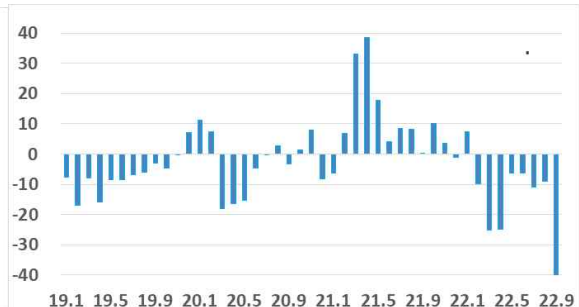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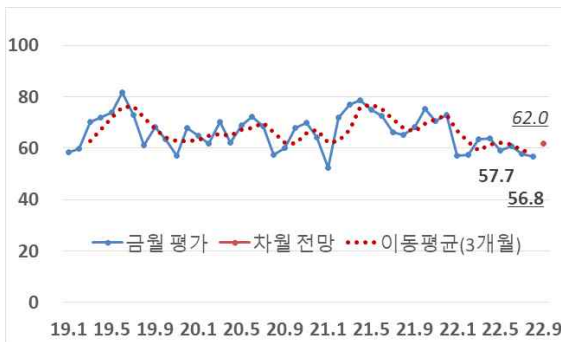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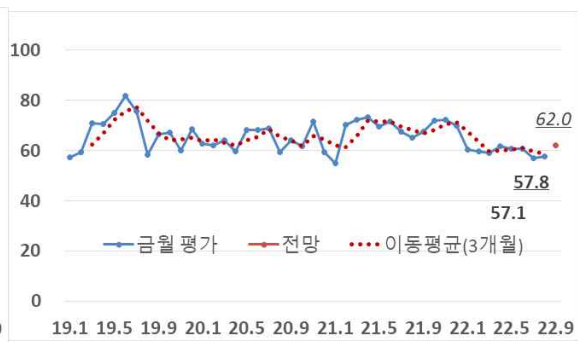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6.8(57.7→56.8)로 전월과 유사한 정도였지만(-0.9p), 여전히 전년 동월(65.1)과의 차이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4.3→44.6)의 하락폭이 매우 컸던 반면(-9.7p), 지방(58.7→61.8)은 소폭의 개선세를 보였음(+3.1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7.8(57.1→57.8)로 전월의 수준을 유지했지만(+0.7p), 전년 동월(65.1)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52.2→48.2)은 하락세로 나타났지만(-4.0p), 지방(58.7→61.8)은 수도권과 달리 소폭 개선된 결과가 조사됨(+3.1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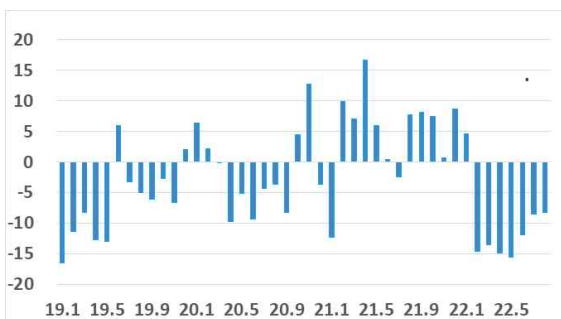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8월 평가	56.8	65.1	44.6	61.8	42.1	67.7
	2022년 9월 전망	62.0	69.3	51.8	66.2	47.4	77.4
자금조달	2022년 8월 평가	57.8	65.1	48.2	61.8	42.1	75.8
	2022년 9월 전망	62.0	66.3	57.1	64.0	52.6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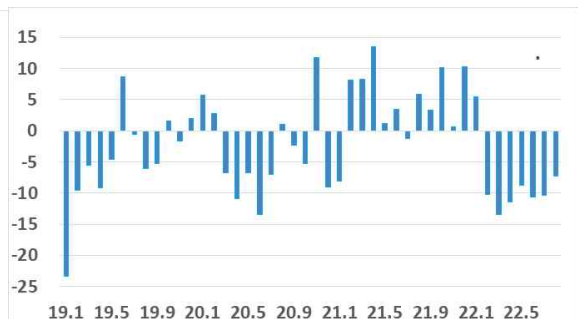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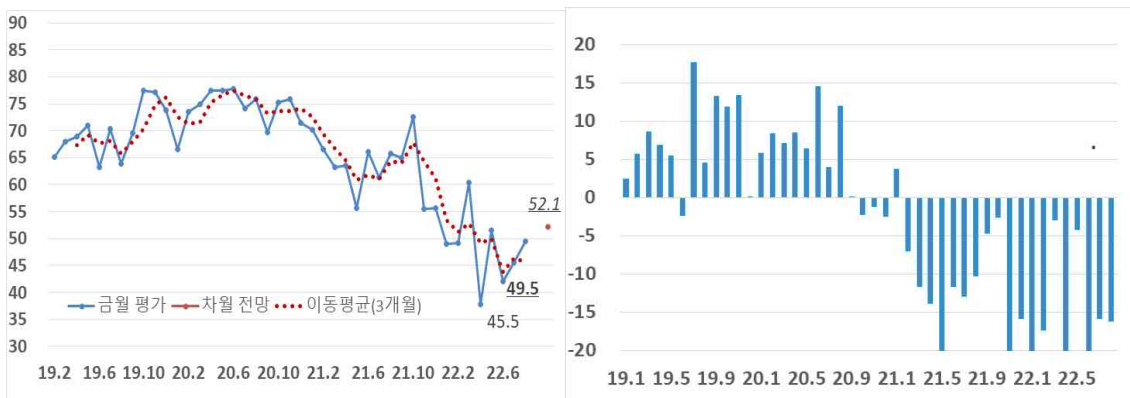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전월의 수준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49.5(45.5→49.5)로 전월에 이어 개선되었지만(+4.0p) 전년 동월(65.7)과 비교하면 예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39.1→39.3)은 전월 대비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0.2p), 지방(47.6→53.7)에서는 확연한 개선세를 보였음(+6.1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도 56.8(55.6→56.8)로 사실상 전월과의 차이가 없긴 하지만(+0.2p), 전년 동월(69.3)에 비추어보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정도로만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58.7→44.6)에서는 전월보다 매우 큰 폭으로 악화된 결과가 집계되었으며(-14.1p), 지방(54.5→61.8)은 개선세가 작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7.3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8월 평가	49.5	65.7	39.3	53.7	34.2	56.5
	2022년 9월 전망	52.1	65.7	55.4	50.7	44.7	62.9
인력수급	2022년 8월 평가	56.8	69.3	44.6	61.8	44.7	67.7
	2022년 9월 전망	56.8	67.5	60.7	55.1	55.3	66.1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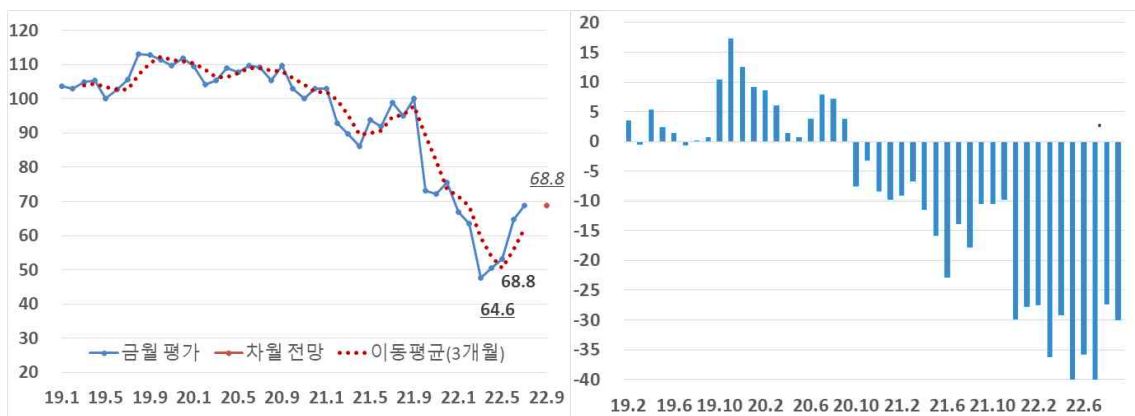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개선세 유지, 전년 동월과의 차이는 현격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40.1(33.3→40.1)로 전월보다 개선되며(+6.8p). 다음 9월(45.8)에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예년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을 유의해야 함. 근래 가격하락세를 보였던 철근같은 일부 자재의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생산지체가 벌어진다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업계의 위험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39.1→41.1)에서 소폭 개선(+2.0p), 지방(31.5→39.7)도 개선되었지만(+8.2p) 전년 동월과의 차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임.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8.8(64.6→68.8)로 소폭 개선되었지만(+4.2p), 자재수급지수가 100이하를 유지하는 지금의 상황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73.9→66.1)에서는 일정 수준 하락세를 보였던 반면(-7.8p), 지방(61.5→69.9)은 수도권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선됨(+8.4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8월 평가	40.1	71.7	41.1	39.7	44.7	50.0
	2022년 9월 전망	45.8	73.5	51.8	43.4	50.0	56.5
자재수급	2022년 8월 평가	68.8	98.8	66.1	69.9	60.5	83.9
	2022년 9월 전망	68.8	91.0	73.2	66.9	71.1	82.3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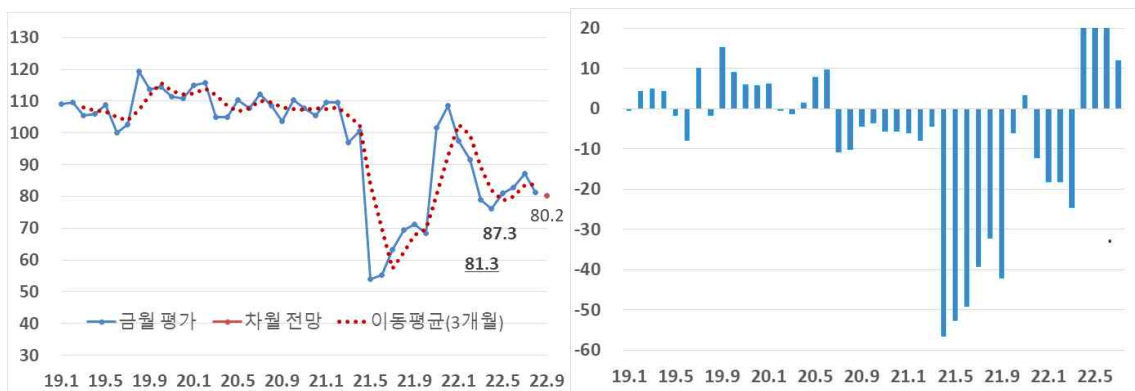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소폭 악화, 업황개선은 요원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0.0(52.9→50.0)로 전월보다 소폭 낮아졌지만(-2.9p), 차월(57.8)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7.8p).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에서 건설장비의 임대료는 건설업황의 개선에 따라서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곤란한 부분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56.5→51.8)에서 소폭 하락했으며(-4.7p), 지방(51.7→49.3)에서도 전월보다 떨어진 것으로 집계됨(-2.4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1.3(87.3→81.3)으로 악화되면서(-6.0p), 건설장비의 수급지수는 여전히 두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임.
 - 지역별로는 수도권(84.8→76.8)의 하락세가 매우 컸으며(-8.0p), 지방(88.1→83.1)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악화를 보였음(-5.0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2년 8월 평가	50.0	39.8	51.8	49.3	50.0	53.2
	2022년 9월 전망	57.8	49.4	58.9	57.4	52.6	67.7
장비수급	2022년 8월 평가	81.3	69.3	76.8	83.1	73.7	93.5
	2022년 9월 전망	80.2	72.3	82.1	79.4	76.3	96.8



〈건설장비수급〉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8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9.6	51.8	35.7	41.2	34.2	48.4	
	차월 전망	49.5	65.1	44.6	51.5	39.5	59.7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7.9	47.6	41.1	50.7	39.5	75.8
		차월 전망	57.3	66.3	60.7	55.9	65.8	74.2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8.0	47.0	39.3	37.5	36.8	56.5
		차월 전망	56.8	63.9	58.9	55.9	60.5	71.0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급	금월 평가	56.8	65.1	44.6	61.8	42.1	67.7
		차월 전망	62.0	69.3	51.8	66.2	47.4	77.4
	자금조달	금월 평가	57.8	65.1	48.2	61.8	42.1	75.8
		차월 전망	62.0	66.3	57.1	64.0	52.6	77.4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49.5	65.7	39.3	53.7	34.2	56.5
		차월 전망	52.1	65.7	55.4	50.7	44.7	62.9
	인력수급	금월 평가	56.8	69.3	44.6	61.8	44.7	67.7
		차월 전망	56.8	67.5	60.7	55.1	55.3	66.1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0.1	71.7	41.1	39.7	44.7	50.0
		차월 전망	45.8	73.5	51.8	43.4	50.0	56.5
	자재수급	금월 평가	68.8	98.8	66.1	69.9	60.5	83.9
		차월 전망	68.8	91.0	73.2	66.9	71.1	82.3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0.0	39.8	51.8	49.3	50.0	53.2
		차월 전망	57.8	49.4	58.9	57.4	52.6	67.7
	장비수급	금월 평가	81.3	69.3	76.8	83.1	73.7	93.5
		차월 전망	80.2	72.3	82.1	79.4	76.3	96.8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